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우즈 1천만달러 '입맛춤'

■PGA 투어 페덱스컵 포인트 순위 (17일 현재)

1	타이거 우즈	12만3천33점
2	스티브 스트리커	11만455점
3	필 미켈슨	10만9천357점
4	로리 사버티니	10만5천192점
5	최경주	10만3천765점
6	이른 배틀리	10만2천350점
7	잭 존슨	10만2천872점
8	미크 캘버베키아	10만2천68점
9	세르히오 가르시아	10만1천76점
10	비제이 싱	10만1천64점



투어챔피언십 우승...페덱스컵 1위

7승 상금 포함 올 2천만 달러 수입

최경주 페덱스컵 5위...상금 100만 달러

“너무나 빠른 결말”, “새로운 제도를 채택했지만 타이거의 배만 불려졌다”, “달라진 것은 타이거가 시상식에서 우승컵 2개를 받았다는 사실 뿐”

17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리크골프장(파70·7천145야드)에서 막을 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챔피언십이 예상대로 타이거 우즈(미국)의 우승으로 끝나자 미국 언론은 싱거운 피날레였다고 전했다.

현존하는 스포츠 선수 가운데 가장 압도적인 지배력을 자랑하는 우즈는 이날 4언더파 66타를 쳐 4라운드 합계 23언더파 257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톱 핀첨 PGA 투어 커미셔너는 우즈에게 투어챔피언십 우승컵과 함께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1위 선수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크리스탈 트로피를 건넸다.

공동2위 잭 존슨과 마이크 캘버베키아(이상 미국·265타)를 무려 8타차로 따돌리며 대회 최스타 우승 기록을 6타나 경신한 우즈는 시즌 7승과 함께 통산 61승째를 거둬 ‘독주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했다.

우승 상금 126만달러를 받아 시즌 상금이 1천86만7천달러에 이른 우즈는 상금왕을 확정했고 페덱스컵 우승에 따른 1천만달러까지 보태면 이번 시즌 필드에서 쓸어담은 돈은 2천만달러를 넘었다.

시즌 상금은 2004년 비제이 싱(피지)가 세운 최다 상금 기록에 2만9천114달러 모자랐지만 우즈는 불과 16개 대회에서 상이 29개 대회에서 모든 상금과 맞먹는 액수를 벌어들여 순도면에서 훨씬 앞섰다.

우즈의 경기력은 144명이 출전한 120명, 70명, 30명으로 출전 선수를 줄여가면서 치른 플레이오프에서 더욱 빛났다.

144명이 나선 첫 대회를 결장했지만 나머지 3개 대회에서 우승 두차례와 준우승 한번으로 307만7천달러를 챙긴 우즈에게 은퇴한 뒤에 받을 수 있는 페덱스컵 1위 상금 1천만달러는 오히려 ‘푼돈’처럼 보였다.

우즈는 “플레이오프에서는 가장 뛰어난 선수들과 경쟁해야 하기에 정말 잘쳐야 한다”면서 “이번 대회에서는 너무나 플레이가 잘 됐다. 우리 모두 즐거운 경기였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서 나섰던 43차례 PGA투어 대회에서 한번도 역전패를 당하지 않았던 우즈는 이날 추격자들에게 이렇다 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다.

3타차 2위 캘버베키아가 1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내면서 2타차가 됐지만 역전극을 기대하는 슬렁거림이나 팽팽한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번홀(파3)에서 우즈의 짧은 파퍼트가 홀을 돌아나왔지만 여전히 우즈를 상대로 역전 우승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는 아무도 없는 분위기였다.

3번홀(파4)에서 그린을 훌쩍 넘겨 또 한개의 보기가 나오는 듯 했으나 환상적인 로브샷으로 파를 지켜낸 우즈는 6번(파3), 8번(파4), 9번홀(파5)에서 버디를 뽑아내며 우승을 향해 줄달음쳤다 13번(파4), 14번홀(파3)에서 줄버디를 엮어내자 경기는 준우승 싸움으로 변모했다.

3라운드에서 10언더파를 때려 코스레코드를 갈아치웠던 마스터스 챔피언 존슨은 2타를 줄여 1타를 잃어버린 캘버베키아를 따라 잡아 공동2위에 올랐다.

전날 샷 난조로 5타를 잃는 부진을 겪었던 최경주(37·나이키골프)는 샷은 여전히 흔들렸으나 퍼팅 감각이 살아나면서 1언더파 69타를 쳤다.

4라운드 합계 4언더파 276타로 공동21위에 오른 최경주는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순위 5위를 지켜 보너스 100만달러를 확보했다.

상금 13만달러를 받은 최경주는 시즌 상금 458만7천859달러로 랭킹 5위를 유지했다.

플레이오프는 막을 내렸지만 PGA투어는 오는 21일 개막하는 터니스 톤리조트챔피언십부터 7개 대회로 구성된 가을시리즈를 추가로 치른다.

가을시리즈는 30명으로 제한된 투어챔피언십 출전권을 놓친 선수들이 주로 나서 내년 투어 대회 출전 권을 놓고 다들 예정보다 상위 랭커들도 종종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최경주도 28일부터 10월1일까지 대륙 대항전인 프레지던츠컵에 출전한 뒤 휴스턴오픈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 타구 사고 날 뻔

파5홀 두번째 샷 그린까지 날아가 앞팀 '깜짝'

▲17일 열린 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챔피언십에 구름처럼 몰린 관중들이 손으로 해를 가린채 18번홀 타이거 우즈의 티샷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AP=연합뉴스

투어챔피언십 우승과 페덱스컵 포인트 1위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거머쥔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큰 사고를 날 뻔했다. 우즈는 17일 투어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도중 9번홀(파5·600야드)에서 앞 팀 선수들이 퍼팅을 하고 있는 그린에 볼을 올려 버렸다. 당시 우즈는 티샷을 날린 뒤 그린까지 286야드가 남아 있었는데 2온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5번 우드로 두번째 샷을 날렸다.

그런데 생각보다 거리가 난 볼은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와 잭 존슨(미국)이 퍼팅을 하고 있던 그린에 올라갔다. 우즈가 친 볼은 존슨 바로 옆에 떨어졌다.

3퍼트로 보기를 한 존슨은 “볼이 똑 떨어지길래 타이거가 친 볼일 것이라 생각했다. 맞지는 않았지만 잠시 집중력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가르시아는 “아마 타이거가 그렇게 거리가 나리라고 생각지 못했던 게 틀림없다”고 했지만 “어쨌든 좋은 일은 아니었다”고 고집했다.

우즈는 “그렇게 멀리 나갈 줄 몰랐다”면서 가르시아와 존슨에게 사과했지만 ‘에티켓’을 어겼다는 논쟁을 감수해야 했다. 우즈는 5번 우드로 250야드 안팎을 날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일본프로골프투어 더블 피닉스토너먼트 때도 우즈는 13번홀(파4·322야드)에서 티샷을 그대로 그린에 올려 퍼팅을 준비하고 있던 가타야마 신고(일본)를 맞힐 뻔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신지에 무한질주 계속되고 있다

19일부터 KLPGA 선수권

최다승·최다상금 행진 관심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의 ‘지존’ 신지에(19·하이마트·사진)가 시즌 6승의 기쁨을 누린 지 사흘만에 무한질주를 다시 시작한다.

19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여주의 자유골프장(파72·6천412야드)에서 열리는 신세계배 KLPGA선수권대회는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한국여자프로골프의 메이저대회다.

이번 대회에서도 최대의 관심사는 신지에다.

16일 끝난 SK에너지 인비테이셔널 우승으로 신지에의 KLPGA 역대 한 시즌 최다승과 함께 시즌 상금 5억원을 돌파했다. 이제부터는 신지에가 작성하는 모든 기록들이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는 셈이다.

우선 신지에의 프로에 데뷔한 지 만 2년도 되지 않아 상금으로만 7억9천922만원을 벌어들였다. 이번 대회에서 컷만 통과해도 최단기간에 통산 상금 8억원을 넘어

선 선수가 된다.

6월 한달 동안 3개 대회를 연속 휩쓸었던 신지에의 9월에 열린 대회에서 2주 연속 우승 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번 대회를 우승한다면 한 시즌에 3주 연속 우승을 두 번 하는 셈이다. 이 또한 신지에가 처음이다.

과격지세인 신지에를 저지할 선수는 누구일까라는 궁금증도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됐다. 지난 주 SK에너지 인비테이셔널에서 해외파들이 출동했지만 홍진주(24·SK에너지)만이 신지에와 마지막 라운드 중반까지 접전을 펼쳤을 뿐 적수가 없었다.

이번 주 대회에도 올 시즌 3승의 안선주(20·하이마트), 2승의 지은희(21·캘러웨이)와 함께 해외파 송보배(21·슈페리어)와 김소희(24·빈폴골프)가 출전하지만 신지에의 상승세를 꺾기가 쉽지않아 보인다.

이는 신지에의 올 시즌 평균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지난 해 라운드당 평균타수 69.72타로 여자골프 최초로 60대 타수를 쳤던 신지에의 현재 평균 타수가 69.52타를 기록하고 있다. 2위 지은희(70.79타)와 1.27타 차이가 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민호(청색)가 1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올림픽 아레나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유도선수권대회 마지막날 남자 60kg급 3~4위 결정전에서 브라질로 로키(슬로베니아)에게 목조르기 기술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민호 '아쉬운銅'

세계유도선수권 남 60kg급

“작은 거인” 최민호(27·KRA)가 제25회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 아쉬운 동메달에 그쳤다.

최민호는 1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올림픽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남자 60kg급 3~4위 결정전에서 브라질로키(슬로베니아)에 유효 3개를 빼앗으며 승리해 동메달을 건넸다.

여자 48kg급에 출전한 김영란(26·인천동구청)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알리나 두미트루(루마니아)에 경기 시작 56초 만에 잡아메치기 한판으로 겨 5위에 그쳤다. 그러나 48kg급에 걸린 2008 베이징올림픽 출전 쿼터를 따냈다.

전날까지 금메달 1개도 따내지 못하며 고전하던 일본은 마지막날 결린 금메달 4개 중 3개를 휩쓸었다.

남녀 무제한급의 무태야 아사유키와 쓰카다 마키가 금메달을 보낸 일본은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브라질이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로 2위에 올랐고 프랑스, 쿠바, 중국이 금메달 2개씩을 획득했다.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따낸 한국은 8위를 차지했고 금메달과 동메달 1개씩을 탄 북한은 9위가 됐다.

이번 대회에서 남자 60kg, 73kg급 여자 48kg, 52kg, 78kg급 등 5개 체급에서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한국 선수단은 20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함평 다이내스티 CC 추석 당일 오전만 휴장

추석 연휴에도 함평 다이내스티CC를 비롯 광주·전남권 골프장 등 전국 51개 골프장이 문을 열고 내장객을 받는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광주·전남 지역 골프장에 따르면 오는 24일~26일 연휴 동안 51개 골프장이 휴장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91개 골프장은 추석날인 25일만 휴장한다.

광주·전남 지역 골프장의 경우 골드레이크CC를 비롯 광주, 남광주, 아크로, 승주, 클럽900, 파인힐스CC 등 회원제 골프장 대부분이 연휴동안 휴장없이 영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그러나 함평 다이내스티는 25일 오전만 휴장하고 이날 오후, 24일, 26일에는 정상영업을 하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